

#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관련 항목 전개

## Deployment of Standard Subdivisions Topics in Directory Classification Scheme

김성원(Sungwon Kim)\*

### 초 록

인터넷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 및 획득이 정보검색의 일차적인 행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의 보편화는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의 효율화는 인터넷 정보검색 환경의 효율화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인터넷 정보자료를 선별하고 조직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전통적인 문헌분류법에서 여러 주제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식, 접근법을 모아 구성한 표준구분(standard subdivision) 항목들을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지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문헌분류법의 표준구분에 포함된 항목들을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With the rapid distribution and active usage of the Internet, information search and retrieval through Internet has become a primary form of information access. This ubiquity of information access through Internet means the increased significance of search performance offered by Internet portals, since the optimization of search performance by portal has strong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access of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in general.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lassification scheme used in the directory service of internet portals, which provides selected and organized access to Internet information. First, the author analyzes the deployment of directory classification of standard subdivision topics used in traditional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with emphasis on the table composed of the form and approach, which are applicable to diverse subject areas. Then, based on this analysis, he proposed a method of applying certain subdivisions of the standard subdivision to directory service of Internet portals.

키워드: 디렉토리 서비스, 디렉토리 분류체계, 분류체계, 표준구분, 표준구분항목 전개  
directory service, directory classification scheme, classification scheme, standard  
subdivision, deployment of standard subdivision topics

---

\* KT 서비스개발본부 데이터서비스담당 부장(sungwonk@paran.com)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23일 ■ 최초심사일자: 2008년 8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10일  
■ 情報管理學會誌, 25(3): 357-375, 2008. {DOI:10.3743/KOSIM.2008.25.3.357}

## 1. 서론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요구의 일차적인 정보검색 경로로서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보검색 행태가 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포털의 활성화에 따른 정보검색 행태의 변화는 인터넷 검색포털을 중요한 정보검색의 창구로 자리매김 했으며, 정보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서비스의 효율성은 정보검색 및 이용환경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색기능은 크게 키워드 검색, 네비게이션 중심의 서핑,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한 브라우징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한 브라우징은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한 검색어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경우나 특정 주제에 대해 관련된 여러가지 웹 정보원을 일괄적으로 검색해 보기를 원하는 경우 유용한 정보검색 방법론이다. 특히 특정 주제에 관련된 정보원을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는 디렉토리 서비스는 정보자원이 자동으로 수집된 것이 아닌 디렉토리 서퍼(surfer) 혹은 에디터 등으로 불리우는 전문적 인력에 의해 선정되어진 정보원들로 구성되므로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최경락 2008). 또한 디렉토리 서비스는 해당 정보자료를 구조화된 지식의 분류체계인 디렉토리 분류체계로 조직화하여 제공하므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오경목 2002).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분야의 분류법에서 모든 주제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식, 접근법 등을 모아놓은 표준구분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를 살펴보면 표준구분 항목 모두가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에 전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용적인 정보자원이 많은 인터넷의 성격을 반영하여 표준구분 항목에 따라 전개된 항목의 다과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전개된 항목수의 다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표준구분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준구분 항목이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에서 전개된 항목 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이론', '철학' 등 학문적인 성격의 표준구분 항목의 경우 실용적인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관련 정보량이 적고 이에 따라 이를 위한 항목의 전개도 적은 것을 그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특정주제의 이론, 철학만을 다룬 정보자원인 웹사이트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이에 따라 그러한 정보자원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도 전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전통적인 분류법의 표준구분 항목이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표준구분 항목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고는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의 표준구분항목 전개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에서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본 고의 고찰은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의 수행을 위해 분석대상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도 존재하지만 범용성을 갖는 디렉토리 서비스는 이용률이 높은 검색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임을 반영하여 대중화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선정을 위해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포털 가운데 이용빈도가 높은 포털인 네이버와 디렉토리 서비스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외 포털인 야후의 국내 디렉토리 서비스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표준구분 항목은 대표적인 열거식 분류법인 듀이십진분류법(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과 한국십진분류법(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의 표준구분 항목의 최상위 항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선정된 분류항목을 중심으로 표준구분의 분류항목이 분석대

상 디렉토리의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표준구분 항목이 전개되고 있는 유형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유형과 전통적인 도서관의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및 적용 원칙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교를 통해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렉토리 분류체계내에서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그 하나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검색 포털의 디렉토리 서비스 가운데 두 개의 디렉토리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두 개의 디렉토리만을 선정한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선정된 두 디렉토리 서비스가 국내외의 대표적인 검색포털로서 이용률이 높은 디렉토리 서비스이며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의 유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비록 분석대상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수는 많지 않지만 선정된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석을 통해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제한점은 표준구분 항목 가운데 최상위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하위의 모든 세분 항목을 포함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하위 항목을 포함한 경우는 표준구분의 제1구분 항목이 디렉토리 분류

체계에 전개되어 있지 않고 하위 항목이 다수 전개된 경우만으로 국한하여 전개현황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디렉토리 서비스를 포함하였고 또한 표준구분 제1구분 항목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의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좀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향후 분석 대상 디렉토리 서비스를 추가하고 표준구분의 하위 항목까지를 포함하여 연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2 표준구분 개요

표준구분은 사전, 정기간행물과 같은 저작의 형식과 연구, 역사적 접근과 같은 저작의 접근방법 등 여러 주제분야에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별도의 보조표인 표준구분표(standard subdivisions table)로 모은 것이다. DDC에서는 표준세구분, KDC에서는 표준구분이라는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두 개념을 포괄하기 위해 표준구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표준구분에 대

해 DDC 용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Dewey 2003).

“Standard subdivisions: Subdivisions found in Table 1 that represent frequently recurring physical forms(dictionaries, periodicals) or approaches(history, research) applicable to any subject or discipline. They may be used with any number in the schedules and tables for topics that approximate the whole of the number unless there are instructions to the contrary. See also Tables.”

“표준구분: 보조표 1에서 볼 수 있는 세분 항목은 빈번히 반복되는 물리적인 형식(사전, 정기간행물) 혹은 접근방법(역사, 연구)을 나타내며 모든 주제와 학문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지시가 없는 한 해당 분류항목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 본 표와 보조표의 모든 주제항목과 사용될 수 있다. 보조표도 참조하라.”

위와 같이 정의되는 표준구분 구성의 대략은 <표 1>과 같다.

<표 1> KDC와 DDC 표준구분 제1구분 항목

기호	KDC	DDC
-01	철학 및 이론	Philosophy and theory
-02	잡저	Miscellany
-03	辭典, 事典, 인용어사전, 약어표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04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Special topics
-05	연속간행물	Serial publications
-06	학회, 단체, 협회, 기관, 회의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07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교육자료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pics
-08	총서, 전집, 선집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s
-09	역사 및 지역취급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앞의 표와 같은 제1구분 항목들로 구성된 표준구분은 표준구분 항목 단독으로만은 사용될 수 없으며, 본 표 혹은 표준구분을 조합하도록 지시된 보조표의 항목에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구분을 특정 주제에 조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기호로 한 자리의 '0'과 함께 사용한다. 둘 이상의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저작의 경우라도 달리 지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구분은 하나만 적용해야 하며 이런 경우를 위해 DDC는 표준구분 항목간의 우선 순위표(table of preference)를 제공하고 있다 (Dewey 2003). 분류작업 과정에서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하여 세분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평이한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밀한 적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규정을 포함하여 관련되는 몇 가지 규정을 정확히 주지하고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준구분 항목에 해당하는 저작의 분류작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첨언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구분 항목과 동일한 항목이 본 표상에 전개되어 있는 경우이다. 본 표와 표준구분 항목에 각기 전개된 동일한 분류항목을 적용하는 기본 원칙은 해당 저작이 특정한 주제와 결합되지 않고 해당 표준구분 항목의 형식이나 접근방법으로 전 주제를 다룬 경우 본 표의 항목에 분류하며,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저작이라면 특정 주제에 표준구분을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저작이라면 본 표의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특정주제를 다루기 위해 표준구분 항목에 전개된 형식이나 접근방법을 채용한 저작의 경우 '해당주제 + 표준구분 항목'의 형태로 조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주제를 전(前)조합하여 전개하여 놓은 열거식 분류법에서 표준구분 등 보조표를 도입하는 의미는 필요한 경우 표준구분 등의 보조표를 조합하여 분류항목을 세분함으로써 해당 저작의 주제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후(後)주제조합방식인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장점을 도입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 2.3 디렉토리 분류체계와 문헌분류법의 비교

전통적인 지식 분류체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개별 학문분야의 지식 분류체계와 문헌정보학 분야의 문헌분류법을 들 수 있다. 문헌정보학 영역뿐 아니라 개별 학문주제에서도 해당 학문 내 지식의 분류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예로 생물학 분야의 경우 생물의 분류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발전시켜온 문헌분류체계는 이러한 개별 학문주제의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전체 주제영역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범용 분류체계이며, 학문분야의 지식분류에 기반하여 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분류체계이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자원을 조직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를 위한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는 지식,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주제분류라는 점에서 학문의 분류나 문헌정보학의 분류체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분류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성격이 학문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실용적인 성격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학문분류체계나 문헌분류

체계와 차이점을 갖는다(김성원 2005).

첫째, 대상 정보원의 관점에서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의 적용대상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담은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문헌정보분야의 분류법은 책자와 전자적 형태로 발간되는 학문적 성격의 자료가 주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디렉토리 분류체계는 학문적 주제뿐 아니라 일상적인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다수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분류체계의 편집자와 사용자라는 관점에서 문헌분류법은 분류법을 편집하는 전문가와 이에 준거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사용자인 도서관 현장의 사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편집자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는 분류체계의 편집자와 사용자 모두가 동일한 조직에 속하며 사용자가 편집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사용 중에 발생하는 개정 및 추가 요구는 즉시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특정 포털 내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표준화되기 어렵고 더불어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유영준 2004).

셋째, 분류작업의 단계인 개념, 언어, 기호단계의 관점에서 문헌분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류 대상 자료로부터 자료의 주제를 파악해내는 개념단계, 추출된 개념을 통제언어인 주제기입어로 표현하는 언어단계, 그리고 표현된 언어를 해당 분류체계의 기호로 변환하는 기호단계를 모두 거쳐 분류작업이 이루어진다. 반면,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분류과정은 개념단계와 언어단계만으로 완료된다. 이에 따라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편집하

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하위의 전개항목이 10개를 넘는 경우 항목 전개가 제한되는 십진 분류체계와는 달리 항목 전개에 있어 수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류작업자의 입장에서도 기호단계의 작업이 줄어들게 되며,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류기호가 아닌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된 기입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기본적으로 지식분류체계에 기반하여 학문의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문헌분류체계에 비해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는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자료를 분류의 대상으로 하므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며, 변화하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자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된다.

위와 같이 문헌분류체계와 몇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해 코흐는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비 논리적 세분과 이에 따른 정보자원의 분산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브라우징 효율의 저하를 야기하여 디렉토리 서비스의 기본적인 효율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Koch 1997). 이러한 지적은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가 업체별로 상이하여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개별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현행화와 논리적 전개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디렉토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염두에 두고 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점이라 판단된다.

### 3.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 분석

본 장에서는 전통적인 문헌분류법에서 표준구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표준구분의 제1구분 항목을 중심으로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항목 전개현황을 분석하였다. 다만 표준구분의 제1구분에 전개된 항목들을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찾을 수 없고 또한 2구분 이하의 항목이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다수 전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구분 항목이 아닌 항목도 포함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전개된 항목이 많아 표준구분 항목 전개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파악되는 '-05' 연속간행물, '-06' 기관, 단체, '-09' 역사, 지리적 취급 항목을 독립된 절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전개된 항목이 많지 않은 나머지 표준구분 항목들은 하나의 절로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 3.1 '-05' 연속간행물 항목의 전개 분석

표준구분 '-05' 항목은 특정 주제의 연속간행물(serial publications) 형태의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표준구분 항목이다. 연속간행물 관련 항목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항목 전개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구분의 연속간행물 항목은 신문, 잡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활성화 되어 있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항목이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다수 전개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서분류법의 표준구분 연속간행물 항목의 적용은 형태와 간기에 무관하게 적용하며 잡지와 신문이 대표적인 항목이다. 특정 주제에 관련되지 않은 다학제적 성격의 신문과 잡지는 별도로 마련된 총류 아래의 주제분류 항목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즉 DDC의 경우 종합지와 잡지는 총류 신문, 잡지의 해당 항목아래에 분류하고 주제 분야별 신문은 해당주제에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하여 전개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대표적 항목으로 신문(인터넷 신문), 잡지(웹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네이버의 '뉴스 미디어 > 신문' 항목 아래에는 종합지인 '일간신문'을 위한 10개 항목,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등 전문신문을 위한 7개 항목, 4개의 지역/해외신문, 그리고 3개의 학생/학교신문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전문신문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별' 신문 항목아래에는 '건강, 의료', '부동산신문' 등 40개 분야별 신문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문헌정보학 도서분류법의 표준구분 항목과 비교하여 보면 종합지와 전문지의 구분없이 모두 '뉴스 미디어 > 신문'아래에 전개되어 있다는 차이를 볼 수 있다.

야후의 신문 항목의 전개를 살펴보면 '뉴스와 미디어 > 신문' 항목아래 종합지를 중심으로 25개 사이트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 '국제', '분야별' 등 16개 전문 주제별 신문을 위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신문'의 하위 항목인 '인터넷 신문' 항목은 하위의 분류항목 전개 없이 146개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분류하고 있고 '분야별 신문' 항목은 각 주제분야에서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하여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형태로 전개한 18개 항목을 참조

크로 포함하고 있다. 즉 야후에서는 표준구분 신문 항목의 전개에 있어 종합지의 경우에는 주제 항목으로서의 '신문' 항목에 전개하고 분야별 신문의 경우에는 '해당주제분야 + 표준구분 신문 항목'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당주제분야 + 표준구분 신문 항목'의 형태로 전개한 항목들은 '뉴스와 미디어 > 신문 > 분야별' 항목아래에 참조링크로도 전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제분야별로 전개된 분야별 신문 항목은 50여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뉴스와 미디어 > 신문 > 분야별' 항목아래에 참조링크로 제공되는 분야별 신문 항목은 18개에 그치고 있어 망라적인 제공의 관점에서는 한계점이 파악된다.

네이버의 잡지 항목의 전개를 살펴 보도록 한다. 네이버의 잡지 항목은 인터넷 정보자원을 분류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인터넷 잡지인 웹진과 통합되어 '잡지, 웹진' 항목으로 전개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는 23개의 '잡지, 웹진' 사이트와 '교양, 종합지', '남성잡지', '어린이' 등 53개 분류항목을 8개 범주별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신문항목과는 달리 별도로 '분야별 잡지, 웹진' 항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고 '잡지, 웹진' 아래 모든 주제분야의 '잡지, 웹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후의 잡지 항목의 전개를 살펴보면 '잡지' 항목아래 42개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전개되어 있는 42개 항목 가운데 '시사', '종합, 교양지', '외국잡지' 등 6개 항목은 종합잡지로서 '뉴스와 미디어 > 잡지' 아래에 전개되어 있는 항목이며, 나머지 36개 항목은 해당 주제분야 아래에서 '해당주제분야 + 표준구분 잡지 항목'

의 형태로 전개된 항목을 '잡지'아래에서 참조링크로 모아주기 위해 설치된 참조링크 항목이다. 야후의 '잡지' 항목 역시 학제적 성격이 있는 일반잡지는 '잡지' 항목아래 전개하고 특정 주제분야의 전문잡지 항목은 필요시 해당 주제 항목에 전개하며, 이렇게 특정 주제분야에 전개된 항목은 '뉴스와 미디어 > 잡지' 항목아래에서 참조링크로 모아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제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잡지의 항목이 야후 검색결과 100여 항목 이상으로 파악되는 바, 참조링크 제공의 망라성에 있어서는 신문 항목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제한점을 갖는다.

두 디렉토리 서비스의 연속간행물 항목의 전개를 비교해 보면 한가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쇄물 형태로 제공되는 신문, 잡지의 인터넷 버전과 인쇄물 형태의 발간없이 인터넷으로만 제공되는 신문, 잡지 정보자료를 위한 항목의 전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신문의 경우 네이버는 '뉴스, 미디어 > 신문 > 인터넷신문' 항목을, 야후는 '뉴스와 미디어 > 신문 > 인터넷 신문' 항목을 전개하여 인쇄물의 발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만 제공되는 신문을 위한 분류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잡지, 웹진의 경우에는 인쇄물의 발간 여부와 무관하게 단일한 분류항목만을 전개하고 있다.

### 3.2 '-06' 기관, 단체 항목의 전개 분석

표준구분 '-06' 항목은 해당 주제에 관련된 기관, 단체를 세분하기 위한 표준구분 항목으로서, 디렉토리 분류체계 내에서 표준구분 항



목의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항목으로 파악된다. 두 디렉토리 모두 다수의 주제분야에서 기관, 단체의 개념이 조합되어 분류항목인 카테고리 전개되고 있다. 전개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부 '표준구분 항목 + 주제분야'의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형태로 전개되어 있다.

네이버의 경우 기관, 단체, 협회 관련 항목으로 '기관, 단체', '협회, 단체', '학회', '클럽, 동아리', '커뮤니티', '클럽, 동호회' 등의 항목이 해당 개별주제에 조합되어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네이버의 '기관, 단체' 항목이 전개된 12개 류의 해당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경제, 재테크 > 경제, 경영학 > 기관, 단체: 15개 항목
- 교육, 학문 > 공학 > 건축공학 > 기관, 단체: 81개 항목
- 기업, 쇼핑 > 가구, 인테리어용품 > 기관, 단체: 34개 항목
- 레저, 스포츠 > 겨울스포츠 > 스케이트 > 피겨 스케이트 > 기관, 단체: 25개 항목
- 문화, 예술 > 건축 > 기관, 단체: 34개 항목
- 사회, 정치 > 군대, 국방 > 기관, 단체: 14개 항목
- 생활, 건강 > 가정생활 > 육아 > 기관, 단체: 44개 항목
- 기타 최상위 류: 세계정보 3개 항목, 엔터테인먼트 8개 항목, 컴퓨터, 인터넷 7개 항목, 게임 1개 항목, 뉴스, 미디어 1개 항목

네이버에서 표준구분 항목 '기관, 단체'를 전개하기 위해 채용한 기입어는 위에 열거한 바

대로 다양하다. 다양한 기입어별로 사용된 현황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협회, 단체' 항목의 경우 '레저, 스포츠 > 겨울스포츠 > 스케이트 > 협회, 단체' 등 주로 '레저, 스포츠' 류에서 22개 항목을 중심으로 모두 30개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협회, 단체' 항목 또한 표준구분 항목의 성격으로 전개되어 있으나 '레저, 스포츠' 류의 특성에 맞추어 '기관, 단체'를 '협회, 단체'로 수정하여 항목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럽, 동호회' 항목은 모두 110개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데, 주로 '레저, 스포츠', '문화, 예술', '생활, 건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류의 하위 주제에서 주제세분을 위한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어 표준구분의 성격으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3개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커뮤니티' 항목은 표준구분의 성격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임 > 휴대용게임 > PSP > 커뮤니티' 등 5-6개 항목을 제외하면 17개 항목이 '컴퓨터, 인터넷 > 커뮤니티' 항목과 그 하위의 '가족 커뮤니티', '군대 커뮤니티' 등 '컴퓨터, 인터넷 > 커뮤니티' 항목의 세분항목으로서 표준구분 항목이 적용된 것이 아닌 상위 항목의 세분전개로 분석된다.

'학회' 항목은 모두 151개 항목에 전개되어 있는 데, 모두 '교육, 학문 > 협회, 단체 > 학회' 아래 주제분야별 학회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어 표준구분 항목을 주제적인 성격으로 모아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동아리, 학생기관' 항목은 모두 193개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데, '교육, 학문 > 학교 > 대학교' 항목과 '교육, 학문 > 학교 > 전문대학' 항목

아래 전개되어 있는 개별 대학교 항목의 세분을 위한 구분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기타의 기관, 단체, 협회 성격의 항목으로 '동아리', '동아리, 모임', '학급, 동아리' 동호회, 단체' 등 20여 개의 항목이 전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표준구분 '기관, 단체'의 개념이 적용된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구분 항목 '기관, 단체' 관련 네이버의 항목 전개는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전개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형태로 전개된 항목의 경우 표준구분 항목에서 제공되는 참조링크의 제공이 제한적이며 망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저, 스포츠 > 무예, 격투기'의 하위 항목 가운데 표준구분 개념이 적용되어 '클럽, 동호회' 항목이 전개된 주제는 '검도', '권투', '유도', '태권도', '태권', '펜싱', '합기도' 등 7개 항목임에도 '레저, 스포츠 > 무예, 격투기 > 클럽, 동호회' 아래에는 정보자원인 '무림고수회' 사이트만이 분류되어 있고 위에 열거한 7개 항목에 대한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기업어의 관점에서 네이버의 경우 '기관, 단체', '협회, 단체', '학회', '클럽, 동아리'와 같이 상이한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레저, 스포츠'의 경우 '기관, 단체'로 전개된 항목이 25개, '협회, 단체'로 전개된 항목이 22개로서 두 항목에 분류된 정보자원의 성격을 비교해 보아도 상이한 기업어를 채용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야후의 기관, 단체, 협회 관련 주요 항목으로는 '기관, 단체', '학회, 단체', '클럽, 동호회' 등의 항목이 있다. 관련 표준구분 개념이 조합되

어 전개된 항목수는 '기관, 단체'가 조합된 항목이 505개 항목, '학회, 단체'가 조합된 항목이 127개 항목, '클럽, 동호회'가 조합된 항목이 55개 항목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의 항목으로 '동호회, 단체', '클럽, 동아리', '커뮤니티', '협회' 등의 항목이 해당 주제 항목에 조합되어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제 분야에 따라 '기관, 단체', '학회, 단체', 그리고 '클럽, 동호회' 등의 기업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학회, 단체'의 경우, '교육', '자연과학', '인문, 사회과학' 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클럽, 동호회'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류에서 표준구분 항목을 전개하는 경우 사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기관, 단체'는 '비즈니스와 경제', '건강과 의학', '사회와 문화' 등 최상위 류 항목에서 사용되고 있다.

야후의 기관, 단체, 협회 관련 항목의 전개 방법은 표준구분 항목을 개별주제에 조합하여 전개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에 기관, 단체, 협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제분야에 '기관, 단체', '학회, 단체', '동호회, 단체'의 항목을 전개하고 해당 주제의 하위 항목과 표준구분 항목이 조합되어 전개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한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와 경제' 류의 '기관, 단체' 항목을 살펴보면 '비즈니스와 경제' 류 아래의 하위 주제에서 표준구분 개념인 '기관, 단체'가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들에 대한 참조링크 14개 항목을 모아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참조링크 제공의 망라성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예로 제시한 '비즈니스와 경제 > 기관, 단체' 항목의 경우 14개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하위 항목인 '업종별 조합, 단체' 항목에서 5개의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경제 > 기업 간거래(B2B)' 항목 아래에 전개된 '기관, 단체' 항목만 하더라도 '건강, 의학', '경영', '유통업' 등 30여 개 항목에 달하고 있음을 보면 많은 항목들이 참조링크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후의 기관, 단체, 협회 성격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일 개념을 세분화 필요한 주제항목 아래에 조합하여 전개하고 있는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전개된 항목은 해당 주제가 속한 상위 주제 아래에 설치된 '기관, 단체', '학회, 단체', '클럽, 동호회' 아래에서 참조링크로 모아주고 있어 해당 주제가 아닌 표준구분의 개념으로 접근한 이용자에게 또 다른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3 '-09' 역사 및 지역취급 항목의 전개 분석

표준구분 '-09' 항목은 역사 및 지역취급(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을 위한 표준구분 항목으로 특정 주제를 지역적/역사적 관점에서 다른 저작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다.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전개된 주요 항목으로 역사, 지역적 취급, 그리고 한가지 두드러진 항목으로 인물 항목을 들 수 있다.

네이버의 관련 분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구분 역사 항목의 경우 네이버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전개된 항목은 '생활, 건강 > 음식, 요리 > 요리법 > 국가별 > 한국 > 김치

> 김치 역사' 와 '레저, 스포츠 > 대회, 경기 > 국제대회 > 올림픽 > 올림픽의 역사' 등 몇 개의 항목만이 발견된다. 이는 특정 주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정보자료 즉 웹사이트가 많지 않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표준구분 지역적 접근의 경우에도 '사회, 정치 > 기관, 단체 > 시민단체, 운동 > 지역'과 '사회, 정치 > 범죄 > 테러리즘 > 테러단체' 아래의 지역구분 등 소수의 항목에서만 표준구분 지역적 접근 항목이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지역적 접근의 경우 네이버는 디렉토리 서비스와 별도로 구성된 '지역정보' 서비스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별로 거의 전체 주제에 걸친 각종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 포털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이용자가 소재한 특정지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광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디렉토리 서비스와는 별개의 주요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표준구분 '-09' 항목과 관련하여 한가지 특징적인 점은 표준구분 '-09'에 포함된 하위 항목인 '인물' 관련 항목이 별도의 최상위 류인 '인물, 사람들'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별도의 최상위 주제 류로 '인물, 사람들' 류를 전개하고 하위에 전 주제 분야에 종사하는 유명인 관련 정보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51개 하위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가의 경우 '인물, 사람들' 아래 전개된 '미술가 > 화가' 항목이 기본 분류항목이고, 미술의 주제 항목인 '문화, 예술 > 미술 > 미술사 > 서양미술사 > 현대미술', '근대미술' 아래에 전개된 화가 관련 항목은 '인물, 사람들' 아래 전개된 화가 항목으로 링크를 제공하는 참조링크이다. 즉 표

준구분 항목을 별도의 주제로 독립시키고 그 아래 전체 주제를 조합하여 전개한 것을 볼 수 있다.

야후의 표준구분 '-09' 항목의 전개를 살펴 보도록 한다. 야후의 '역사' 관련 항목은 50여 개 카테고리 항목에서 전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표준구분 항목의 성격으로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은 '서울', '광주', '대전' 등 '지역정보' 아래에 전개된 특정지역에 대한 역사적 접근 다룬 정보자원을 위한 항목이다. 야후의 분류항목 가운데 표준구분 지역적 접근 항목이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은 지역으로 검색되는 150여 개 항목 가운데 '뉴스와 미디어' > '날씨' > '생활날씨' > '레저 스포츠' 항목 아래의 '골프장 날씨', '낚시터 날씨', '드라이브날씨', '등산 날씨', '해수욕장 날씨', '휴양림 날씨' 등의 항목이 대표적인 항목이다. 야후의 '지역정보' 류의 전개를 분석해보면 네이버와 같이 지역정보를 여타의 최상위 류 항목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네이버의 경우 디렉토리 서비스안에서 별도의 류로 독립시키는 차원을 넘어 별도의 서비스를 구성한 것에 비해, 야후의 경우에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틀 안에서 별도의 최상위 류로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야후 지역정보 류의 인용순(citation order)을 분석해 보면 '지역구분 + 주제영역'의 인용순을 채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구분은 국가, 대륙, 대양, 한국의 지방 등의 항목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해당 지역 아래에 디렉토리 서비스의 최상위 류가 조합되어 항목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정보' > '한국의 지방' > '서울특별시' 항목 아래에는 '건강, 의학', '교육' 등의 최상위 류 항목과 지역적

인 특성 항목인 '여행, 관광', '지역안내', '지역공동체' 등의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야후의 인물 관련 항목의 전개를 살펴보면 인물 관련 항목의 전개방식은 여타의 표준구분 항목과 같이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약 40여 개의 주제항목에서 해당 주제에 종사한 인물들을 위한 항목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보통명사인 예술가, 화가, 사진가, 서예가 등을 기입어로 하여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렇게 개별 주제별로 전개된 인물관련 항목들은 '사회와 문화' > '사람들' 항목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항목에 대한 40여 개 참조링크를 모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와 문화' > '사람들' 항목에는 특정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인물을 위한 '화제의 인물' 등 10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 3.4 기타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분석

이 절에서는 표준구분 항목 가운데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전개된 항목이 많지 않아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에 고찰에 적합치 않았던 표준구분 항목인 '-01' 철학, 이론, '-02' 잡지, '-03' 사전, 백과사전, 요어집, '-04' 특수주제, '-07' 지도법, 연구법, 그리고 '-08' 총서(KDC), 인증적 취급(DDC) 등 항목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전개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구분 '-01' 철학, 이론 항목은 특정 주제를 철학,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저작의 분류를 위한 항목이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표준구분 항목 철학의 분류항목 전개를 살펴보도록

한다. 네이버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분류항목인 카테고리를 검색한 결과는 '교육, 학문 > 인문 과학 > 철학' 항목과 그 하위 항목으로 전개된 '동양철학', '서양철학' 항목이 모두이다. 이론 항목이 전개된 항목으로는 '교육, 학문 > 자연 과학 > 과학 이론'과 '교육, 학문 > 자연과학 > 화학 > 화학 이론' 두개 카테고리가 검색된다. 다만 '교육, 학문 > 자연과학' 아래에 전개되어 있는 '물리학', '생물학', '수학'에는 '물리학이론', '생물학이론', '수학이론' 항목이 전개되고 있다.

야후의 경우 '인문, 사회과학 > 철학' 아래의 '동양철학', '서양철학', '한국철학'의 항목과 '교육 > 교육학 > 교육철학, 교육사' 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주제로서 전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표준구분 항목이 적용되어 전개된 것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야후의 카테고리 항목 가운데 표준구분 항목으로서의 이론이 적용되어 전개된 항목은 '지질학, 지구물리학 > 이론', '음악 > 교육, 이론', '생물학 이론', '미술이론', '영화 > 이론과 비평', '정치외교학 > 정치이론', '물리학 > 이론물리학', '수학이론' 등 8개 항목이다.

이와 같이 네이버와 야후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철학', '이론' 항목의 전개가 많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포털의 기본적인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정보자료의 분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문헌분류법과는 달리 디렉토리 분류는 일상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터넷 정보자원인 웹사이트를 분류의 대상으로 한다. 일상의 정보요구에서 특정주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한 내용만을 모은 정보자원인

웹사이트와 그를 찾는 검색수요가 많지 않을 것임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전개된 분류 항목도 소수이며 해당 항목에 분류되어 있는 정보자원의 수도 많지 않다.

표준구분 '-02' 항목은 특정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다룬 잡저(miscellany)를 위한 항목이다. 표준구분 잡저 항목의 디렉토리 분류에서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한다. 잡저(miscellany) 항목과 핸드북, 법령, 도보, 서지, 특허 등 하위 항목이 적용되어 전개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분류항목은 소수이며, 전개된 항목의 성격은 주제에 표준구분 항목이 적용된 성격이 아닌 표준구분 항목이 자체 주제분야로서 전개된 항목들이다. 이는 표준구분 항목에 따라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전개되기에 성격이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 있음을 의미한다.

네이버의 '교육, 학문 > 참고자료' 항목에는 표준구분 '잡저'의 세분 항목인 '전화번호, 주소', '지도', '특허 @', '표준' 등의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야후의 '참고자료'류의 아래에도 '전화번호, 주소', '지도@', '특허@', '표준' 등 표준구분 '잡저'의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표준구분 항목의 성격이 아닌 주제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구분 '-03' 항목은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dictionaries), 백과사전(encyclopedias), 요어집(concordances) 등의 저작을 위한 항목이다. 네이버의 사전항목인 '교육, 학문 > 참고자료 > 사전' 항목 아래에는 '영어사전', '국어사전' 등 5개의 언어사전 항목과 '인명 사전', '경제 사전' 등 11개 전문사전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또한 전문사전 항목 가운데 '경제 사전'의 하위 항목으로 '금융용어사전', '세무용어사전,

‘의환용어사전’, ‘증권용어사전’ 등의 세분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전 관련 항목은 전개된 항목 수에 있어 많지 않으며 또한 항목 전개도 모두 ‘교육, 학문 > 참고자료 > 사전’의 하위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어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개념이 적용되어 전개된 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야후의 사전 관련 항목은 ‘참고자료 > 사전’ 아래에 전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참고자료 > 사전 > 어학사전’ 아래에 전개된 10개 언어별 사전 항목과 ‘참고자료 > 사전 > 주제별사전’ 항목아래에 전개된 10개의 특수 분야 사전 항목 등이 있다. 이들 항목은 표준구분 항목이 표준구분 항목의 원래 성격에 따라 주제에 적용되어 전개된 항목이라기 보다는 사전자체가 하나의 주제로서 전개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사전 항목과 관련하여 주제에 적용되어 전개된 항목으로는 ‘여가생활 > 자동차 > 역사, 백과사전’ 항목과 ‘주제별 사전 > 인물사전@’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는 ‘사회와 문화 > 사람들 > 인물정보’ 항목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DDC의 표준구분 ‘-04’ 항목은 해당 주제를 특수한 관점에서 접근한 특수주제(special topics) 항목으로서 본 표상에 지시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시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여타의 표준구분 항목과는 성격에 차이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KDC 표준구분 ‘04’의 항목은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등의 표준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KDC의 표준구분 항목 가운데 네이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항목은 ‘문화, 예술 > 출판, 도서 > 독서 > 독후감, 글짓기 > 연설문’ 항목으로 표준구분 개념

의 적용항목이 아닌 주제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야후의 경우에도 연설문 항목을 ‘인문,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연설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 여타 표준구분 항목이 적용되어 전개된 항목은 찾을 수 없다.

표준구분 ‘-07’ 항목은 특정 주제의 지도법, 연구법(research) 및 교육(education), 교육자료의 저작을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다. 지도법, 연구법 및 교육, 교육자료 등 하위 항목이 적용되어 전개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분류항목은 야후의 ‘교육’ 항목을 제외하면 소수이며, 해당 주제가 전개된 기타 항목의 성격은 주제에 표준구분 항목이 적용된 성격이 아닌 표준구분 항목이 자체 주제로서 전개된 항목들이다.

표준구분 항목의 성격으로서 교육이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은 네이버의 ‘경제, 재테크 > 보험 > 보험서비스 > 교육, 훈련’ 등 10여 개 항목으로 파악된다. 연구의 개념이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은 ‘교육, 학문 > 사회과학 > 법학 > 법연구’ 등 몇 개의 항목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시험 관련 항목은 ‘교육, 학문 > 시험, 자격증’ 아래에 20여 개 항목이 주제별로 전개되어 있어 시험을 표준구분 항목이 아닌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후의 분류체계에 교육이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은 300여 항목으로 파악되며, 연구가 전개된 항목은 20여 개 항목, 시험이 전개된 항목은 40여 개 항목으로 파악된다.

두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07’ 해당 항목의 전개를 비교해보면 네이버는 교육, 연구가 적용된 항목은 소수이며 20여 개 항목이 전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의 경우 주제분야에 표준구분 항목이 조합되어 전개된 것이 아닌,

표준구분 항목 '시험'이 주제로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다. 야후의 경우 네이버에 비해 다수의 표준구분 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 항목의 경우에는 300여 주제항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전개된 항목의 경우에는 '인문, 사회과학 > 교육' 항목아래 전개된 7개의 참조링크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구분 '-08' 항목은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KDC와 DDC의 항목이 다르게 전개되어 있다. DDC의 표준구분 '-08' 항목은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s' 항목으로서 특정 주제가 인종차별(discrimination), 소수민족(minorities) 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우 해당 주제에 표준구분 항목을 적용하도록 지시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야후의 '사회와 문화 > 사회적 이슈, 주장 > 세계 > 인종문제'와 '사회와 문화 > 문화와 그룹별 > 문화별 > 소수민족' 등의 항목에서 주제로서 전개되어 있을 뿐 표준구분 항목의 개념으로 조합되어 전개된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KDC의 표준구분 '08' 항목은 총서, 전집, 선집 등의 표준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의 '문화, 예술 > 출판, 도서 > 서점 > 어린이 > 전집도서'와 '문화, 예술 > 출판, 도서 > 서점 > 전집' 등의 주제 항목을 찾아볼 수 있을 뿐 표준구분 항목의 개념이 적용된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 4. 표준구분 항목 전개 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이상의 고찰을 통해 분류법의 표준구분 항목

이 웹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조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 현황을 유형화하여 보고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된 전개현황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첫째, 전통적인 문헌분류법에 전개되어 있는 표준구분 항목 모두가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의 분류항목으로 전개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인터넷 정보자원의 특성상 이론적 학문적 성격이 강한 항목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인터넷상의 정보자료가 많지 않고 자료가 많지 않은 이유로 해당 자료를 위한 분류항목의 전개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와 관련하여 분석대상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따라 전개 방안의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네이버의 경우 표준구분 항목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전개는 문헌분류법의 표준구분의 적용과 같이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으로 전개된 경우를 '기관, 단체'와 같은 일부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표준구분 항목 + 주제분야'의 형태로 전개되어 있다. 네이버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표준구분 항목은 반복되는 형식, 접근법과 같은 전체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항목이 아닌 주제로서 인식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야후 디렉토리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 방안은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형태로 통일되

어 있다.

셋째,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으로 전개된 항목은 상위에 전개된 표준구분 항목에서 '표준구분 항목 + 주제분야 참조링크@'로 모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망라성에 있어서는 보완의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일부 항목에서만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후는 상당한 비율의 항목에서 참조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포함 항목에 있어서는 많은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에 있어 전개된 항목의 기입어가 통제되지 않고 있어 일관성을 상실한 채로 사용되고 있다. 주제분야에 따라 표준구분 항목을 전개하기 위해 기입어를 해당 주제에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분야도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해당 기입어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화가', '가수'와 같이 특정 주제 분야에 종사하는 '인물'의 경우와 같이 해당 주제에 적합한 기입어 채용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항목도 있으나, 표준구분 '기관, 단체' 항목을 위해 사용되는 기입어 '협회, 단체', '학회', '클럽, 동아리', '커뮤니티', '클럽, 동호회'와 같은 경우는 기입어가 통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재현율의 관점에서 검색효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고찰을 기반으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를 위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관리자는 표준구분 항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구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표준구

분 항목은 해당 정보원의 출현시 필요에 따라 주제분야에 표준구분 항목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구분 항목의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여 분류체계 편집자와 분류작업자가 업무 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주제에 관련되지 않은 다학제적 성격의 표준구분 항목은 별도로 마련된 표준구분 항목을 위한 주제 항목에 전개하고, 특정 주제와 결합된 표준구분 항목은 해당 주제분야에서 '주제분야 + 표준구분 항목'의 형태로 전개하는 것을 기본적 전개방안으로 하여야 한다. 표준구분 항목을 주제자체로 전개한 항목은 항목의 성격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셋째, 이렇게 개별 주제에 표준구분 항목을 조합하여 전개한 표준구분 항목은 표준구분 항목아래 모아 '표준구분 항목+주제분야@'의 형태로 참조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링크는 개별주제아래 표준구분 항목을 조합하여 분류 항목을 전개하는 시점에서 바로 등록하여 참조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망라성/포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모든 주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를 위한 기입어는 해당 주제 분야에 적합한 기입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명확한 기입어 변경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기입어를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표준적인 기입어의 적용을 위해 기입어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입어의 통제문제는 분야별 '인물사람'을 표현하는 화가, 작곡가, 가수 등의 기입어와 같이 분야에 따라 특정한 기입어를 채용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물, 사람들'로 기입어를 통제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클럽, 동호회', '클럽, 동아리'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편집상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비표준적인 기입어가 채용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기존의 문헌분류법 표준구분 항목 전개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문헌분류법과 디렉토리 서비스의 성격과 대상자료의 상이함을 이유로 문헌분류법에 기반하여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방안 제시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서비스는 분류체계에 따라 하향식(top-down) 메뉴형태로 자료에 접근하는 서비스이므로 분류체계가 비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검색 효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디렉토리 서비스에 있어 분류체계의 논리성은 서비스의 우열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분류체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의 경우 표준구분 항목의 전개가 분야에 따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고 전개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유영준 2004). 문헌분류법은 지식의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어 체계화된 검증된 분류체계이므로 자료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적용되는 분류의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포털의 디렉토리 분류체계 또한 상당부분이 문헌분류법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음이 선행연구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김성원 2005). 포털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의 전개에 있어 문헌분류법에서의 전개를 참고하여 전개방안을 정립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본 고를 통해 살펴본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관련 항목 전개 고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변화된 정보검색의 관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보검색 포털에서 선별된 정보원을 체계화된 분류체계에 조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보편화 되어 있는 자연어 키워드 검색에 비해 선별된 정보자료를 대상으로 조직화된 형태로 제공되므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을 검색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검색포털의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구이다.

디렉토리 서비스를 위한 디렉토리 분류체계는 초기에는 학문자료 분류를 위해 고안된 문헌분류체계에 기반하였다가 점차 일상생활의 실용적 정보요구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주제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고 항목의 전개 또한 문헌량근거 등 실용적인 요구에 기반하여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변화는 실용적인 정보요구를 반영하여 학문적, 이론적 항목의 전개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이유로 그 분류항목의 전개에 있어서도 문헌량근거가 만족되는 실용적 분류항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개 항목의 선정 자체는 현실적인 정보요구를 반영하여 선정하더라도, 항목을 분류체계내에 전개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최적의 방안으로 정립되어 있는 문헌분류법의 전개 원칙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전개 원리에 대한 고려없이 분류 항목을 전개하는 경우 전개의 기본이 되는 논리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논리를 찾을 수 없는 분류항목의 전개방법은 이용자의 논리적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다. 결국 이용자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정보서비스의 검색효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 고에서 다룬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항목 전개 현상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표준구분 항목 전개 개선방안은 디렉토리 분류체계 항목 전개의 원칙을 수립하여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통해 자신의 요구정보에 접근하는 이용자의 논리적 접근을 보장해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보이용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를 기반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검색 환경의 개선에 관련한 많은 고찰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김명옥. 2007. 기독교 분야 웹문서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분석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27-144.
- 김성원. 2005.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 및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 구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성원. 2006.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항목 및 정보자원의 계량적 분석. 『정보관리연구』, 37(1): 83-103.
- 김정임, 남태우. 2003. 주요 십진분류표에서의 보조표 비교분석 연구. 제1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83-94.
- 남태우. 1996. DDC 21판의 개정내용과 그 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85-104.
- 박은자. 2000. 『정보원과 정보이용: 질적 정보이용안내』. 서울: 아세아문화사.
- 오경목. 2002. Web 자원 목록을 통한 주제게이트웨이 서비스에 관한 연구. 『사회·교육과학연구』, 5(2): 53-75.
- 오동근. 2004. DDC 제22판의 개정과정과 새로운 특징(1),(2). 『도서관문화』, 45(1): 26-35., 45(2): 108-119.
- 유영준. 2004. 패킷분석을 이용한 웹자원의 조직. 『한국비블리아』, 15(1): 23-42.
- 정필모. 2007. DDC 22의 보조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5-11.
- 최경락. 2008. “디렉토리 검색스토리 1회.” 2008. 1.24., “디렉토리검색 스토리 2회 - 진화하는 디렉토리검색.” 2008. 2.25. [2008.04.15].  
 <[http://story.nhncorp.com/story.nhn?story\\_id=65](http://story.nhncorp.com/story.nhn?story_id=65)>.
- <[http://story.nhncorp.com/story.nhn?story\\_id=67](http://story.nhncorp.com/story.nhn?story_id=67)>.

Dewey, Melvil. 200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Dublin, Ohio: OCLC.

Koch, Traugott., et al. 1997. "The Role of Classification Schemes in Internet Resource Description and Discovery".

[2005.09.02].

<<http://www.lub.lu.se/desire/radar/reports/D3.2.3/>>.

OCLC. 2003. Dewey Services [OCLC - Cataloging and Metadata] [2008.03.04].

<<http://www.oclc.org/dewey/>>.